■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23-259.
http://doi.org/10.17948/kcs.2022..95.223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의 조선포교 양상 연구*
—『조선총독부관보』(1911-1945) 기록을 중심으로—

권동우(權東祐)**

목 차

1. 머리말
2. 선행연구 분석과『관보』'일본계 종교' 현황
3.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의 조선포교 전체 양상
4. 각 교파별 조선포교 양상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계 종교 가운데 '교파신도'가 근대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포교를 전개했던 양상에 대해『조선총독부관보』를 중심으로 지역별, 시기별 분포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교파신도 각 교파의 '조선포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일제강점기 일본계 종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개괄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는데, 그 가운데 교파신도 관련 연구는 기초자료의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오류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파신도의 시기별・지역별 분포 양상을 도표로 제작하여 각 교파별 특징을 살펴본 후, 이들의 포교 양상을 구체화했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2744).
** 영산선학대 원불교학부 부교수.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점은 첫째 교파신도의 조선포교가 생각보다 조선 내 각 지역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며, 둘째 교파신도 조선포교의 대부분은 조선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조선총독부관보』를 중심에 두고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종교에 관한 잡건철』, 『조선(朝鮮)에 있어서 종교 및 향사일람(享祀一覽)』과 기타 관공서의 기록, 교단 내 자료, 언론기사 등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일본계 종교의 조선포교 양상에 대한 윤곽을 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교파신도, 조선 포교, 『조선총독부관보』,『조선총독부통계연보』, 『종교에 관한 잡건철』, 『조선에 있어서 종교 및 향사일람』.

1. 머리말

본고는 일본계 종교 가운데 ‘교파신도’가 근대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포교를 전개했던 양상에 대해 『조선총독부관보』(이하, 『관보』)를 중심으로 지역별, 시기별 분포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교파신도 각 교파의 ‘조선포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계 종교의 한국 유입과 포교 과정에 대해서는 일본종교 전체를 포괄하는 개괄적인 연구나[1] 일본불교,[2] 교파신도,[3] 일본기독교[4]를

1) 김태훈, 「「조선총독부관보」로 보는 일본계 종교 유입의 전체도」, 『공존의 인간학』 4,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2020.

2) 원영상, 「근대 일본불교의 한반도 유입의 초기 전개 양상」, 『한국불교학』 87, 한국불교학회, 2018; 「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관계에 대한 연구」, 『일본불교문화연구』 11,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4; 「한국학계의 일본불교 연구 동향」, 『한국불교학』 68, 한국불교학회, 2013; 제점숙, 「개항기 조선 일본불교의 종교 활동에 관한 연구」, 『비교일본학』 29,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3; 김경집, 「근대일본불교의 한국 진출과 활동 양상」, 『한마음연구』 4, 대행선연구원, 2020; 한상길, 「일본 근대불교의 한·중 포교에 대한 연구」, 『한국선학』 20, 2008; 「개화기 일본불교의 전파와 한국불교」, 『불교학보』 46,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7; 서정엄, 「일본불교의 포교—정토진종대곡파의 한국포교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6, 대각사상연구원, 2003 등.

3) 권동우, 「일제강점기 교파신도 한국 유입과 분포에 대한 연구」, 『일본불교문화연구』 11,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4; 「신도의 조선 유입에 관한 재검토: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6,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로 보는 ‘근대신도’의 이중성」, 『종교연구』 80-1, 한국종교학회, 2020; 문혜진, 「일제강점기 경성부 교파신도의 현황과 활동양상」, 『서울과 역사』 101, 서울역사편찬원, 2019; 「일제강점기 부산 교파신도의 현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각 종교의 포교가 지역별, 시대별로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보이며 전개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며, 일본계 종교 관련 자료의 완전한 정리와 이를 토대로 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종종 오류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계 종교 관련 조선총독부 또는 각 지방 관공서 자료를 지역별, 시기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각 교단의 '조선포교'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대조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와 지방 관공서, 또 각 종교에서 발행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근대 일본계 종교 연구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중심으로 각 종교의 지역별, 시기별 포교 양상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주변 관공서 자료와 각 교단에서 자료를 조금씩 교차 검토하면서 오류를 줄여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관보』의 교파신도 관련 기록을 연도별, 교파별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1911년부터 1945년까지 교파신도의 '조선포교'에 대한 포교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했다. 이는 향후 근대 교파신도 또는 교파신도의 해외 포교 연구 심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황과 활동양상」, 『향도부산』 3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9 등.

4) 김성은, 「일본조합교회의 조선전도와 정교분리의 정치화」, 『일본어문학』 80, 일본어문학회, 2018; 박은영, 「일본조합교회 가시와기 기엔의 조선인식 연구」, 『일본문화연구』 5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6; 박혜미, 「일본조합교회 '순교회사' 유일선의 생애와 친일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일본조합교회 간사 김린의 생애와 친일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5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9; 홍치모, 「일본조합교회와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한국교회사학회지』 4, 한국교회사학회, 1992; 성주현,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본조합교회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정성하, 「일본조합교회와 일본제국주의:일본 조합교회의 조선선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 한국신종교학회, 2000; 김수진, 「사건으로 본 한국 기독교사13: 일본 조합교회와 조선 식민지 전도사건」, 『한국기독교사연구회소식』 1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1987 등.

2. 선행연구 분석과 『관보』‘일본계 종교’ 현황

1) 선행연구 분석

교파신도의 ‘조선포교’에 관한 연구 가운데 조선총독부 통계자료를 이용해 전체 교파의 분포 양상을 분석한 것은 2014년 권동우의 연구가 처음이며, 그 뒤를 이어 문혜진이 『관보』를 중심으로 경성과 부산에서 교파신도의 분포에 대해 정리한 연구가 있다.

권동우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에 기록된 통계표를 중심으로 1907년부터 1942년까지 교파신도의 전체 교회 수, 포교사 수, 신도 수 등을 정리했는데, 이는 교파신도의 한국(조선) 포교의 양상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만 교파신도의 한국 내 분포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없다.[5]

이에 대해 문혜진은 조선총독부 발행 『관보』를 중심으로 경성부와 부산을 중심으로 교파신도의 분포와 포교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지역별 시기별로 교파신도의 포교 양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6] 하지만 『관보』 중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인용 통계가 부정확한 점, 종파 분류에 있어서 일부 혼선을 보이는 등 오류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자료 정리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김태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학술진흥회의 연구지원을 받아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 종교자에 관한 기초적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7] 또한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발표했는데,[8] 일본계 불교・교파신도・기독교의 지역별・시기별 분포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다만 이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개별 종교에 대한 구체적 논증이 약

5) 권동우, 앞의 글, 2014, 83-139면.
6) 문혜진, 앞의 글, 2019a, 195-227면 ; 앞의 글, 2019b, 363-398면.
7)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종교자(www.jrpkc.org)’를 통해 해당 작업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8) 김태훈, 앞의 글, 233-273면.

하며, 『관보』기록 중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각 종교별 통계의 교차검증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각성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한국 종교학계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계 종교에 대한 연구는 『관보』를 정리하고 인용하는 수준의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기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아직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충실히 검토하면서도 먼저 『관보』의 내용 중 교파신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표〉형식으로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관보』내 오탈자나 오류의 혼선을 최소화 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자료 이해나 중복된 자료 인용에 의한 통계 오류 등을 바로잡았으며, 교파신도의 '조선포교'가 지역별,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2) 조선총독부 발행 『관보』 내 종교 관련 기록 현황

『관보』는 1910년 8월 29일 '호외'의 발행을 시작으로 30일부터 '정규호'를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1945년 8월 30일까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총 10,450호를 발행했다.[9] 이 가운데 1910년 9월 21일 발행한 명치(明治) 21호의 "처분"에 일본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오타니 야스시(大谷虞)에 대한 선임인가를 한 것이 종교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종교의 포교에 대한 사항을 "사사, 종교"로 따로 구분한 것은 1911년 5월 11일에 발행된 명치 207호부터며, 1945년 7월 10일 소화(昭和) 5529호의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종교"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

『관보』의 "사사, 종교" 관련 기록은 포교관리자인가, 포교관리자변경인가, 포교소이전 및 포교관리자변경인가, 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 포교계출(布教届出), 포교소설치계, 기성포교소계출, 포교소소재지변경, 포교담임자선정계, 포교담임자변경계, 포교소명칭변경계, 포교소폐지계, 포교폐지계, 포교자거주지이전계출, 포교자사망, 주지(住持)취직인가, 주지이동, 주직(住職)이동, 사원

9)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上)』,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총무부, 2001, 8면.

(寺院)창립허가, 사찰폐지허가, 사유림(寺有林)벌채허가, 사유임야매각허가, 사유건물폐기처분허가 등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논자는 이 가운데 『관보』에 기록된 일본계 종교 곧 불교와 교파신도, 기독교에 대해 항목, 종파명, 교회명, 주소, 포교자명, 인가일, 발표일, 관보 호 수를 기준으로 하여 〈표〉의 형태로 정리했다.

『관보』의 정리 방식은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에서 '사사', '종교'를 중심으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여 자료를 선별했다. 이어서 정토교·진종·조동종이나 천리교·흑주교·신리교, 일본조합교회 등 각 종파의 명칭으로 키워드 검색을 해서 누락된 자료를 추가 했으며, 마지막으로 『관보』 전체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누락을 최소화했다.

1차로 입력한 자료는 다시 『관보』 원본 자료를 대조 확인하는 교차 검수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입력 및 검수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관보』 자체 기록에서 인명이나 지명, 교회명 등에 반복적으로 오탈자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인물의 이름에 있어서 같은 시기 같은 교회에 소속된 포교사 가운데 石田一南과 石田一男, 城六大와 城六太, 伊藤ちよ와 伊東ちよ 등과 같이 동일 인물로 추정되지만 이름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추가 점검이 요구된다.

김태훈은 『관보』에 기록된 일본계 종교의 포교자 수를 총 3,145명(조선인 포함)으로 정리했는데, 금번 작업에서는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의 중복을 피하면서 인물 수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포교자 수는 총 2,706명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각 종교별로 교회(명칭/주소) 및 포교자에 대한 오기(誤記)의 확인 작업을 통해 최대한 중복을 배제하면서 포교사의 실제 수효를 정확하게 확인해 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단 인물에 대한 분석은 배제하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교회소 설치를 중심으로 교파신도의 조선포교 양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3.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의 조선포교 전체 양상

교파신도는 근대 일본에서 탄생한 종교다. 왕정복고를 통해 에도막부 시대를 청산한 일본의 신진 정치세력은 황조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인 천황 중심의 신정일치(神政一致)를 복원하기 위해 신도국교화(神道國教化)라는 정치체제를 구상했다. 하지만 기독교를 등에 업은 서구열강과 일본 내 불교계의 반발로 신도국교화는 무산되고 만다. 이에 메이지정부는 신도를 도덕과 종교로 양분한다. 곧 모든 일본 국민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도덕이며 국가의 종사(宗祀)로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신사신도(神社神道=國家神道)와 민간의 다양한 신앙형태를 흡수하면서 자발적으로 종교의 길을 선택한 종파신도(宗派神道)를 '종교'로 인가함으로써 두 종류의 신도를 창출한 것이다.

종파신도는 1876년 신도수성파(神道修成派)와 흑주교(黑住教)의 공인을 시작으로 1882년 신궁교(神宮教), 출운대사교(出雲大社教), 부상교(扶桑教), 실행교(實行教), 신습교(神習教), 대성교(大成教), 어악교(御嶽教), 1886년 신도본국(神道本局), 1894년 계교(禊教), 신리교(神理教), 1900년 금광교(金光教), 1908년 천리교(天理教)가 각각 신도 종파로 공인되며, 천리교를 끝으로 신도에 대한 국가적 공인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가운데 신궁교는 1899년 스스로 종교임을 부정하고 교단을 해산한 후, 재단법인 신궁봉재회(神宮奉齋會)를 결성하면서 종파신도에서 이탈한다. 따라서 종파신도는 총 13개로 이뤄지며, 이들은 신도13파, 종파신도, 교파신도 등으로 호칭됐는데, 점차 교파신도라는 용어가 공식명칭으로나 학술용어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들의 명칭을 '교파신도'로 한다.

교파신도는 현재 일본에서 '민족종교'로 분류된다.[10] 이러한 '민족종교'가 일본의 동아시아 침탈에 부응하여 스스로 세계종교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1885년부터 1945년까지 약 60여년에 걸쳐 나타나며, 신도는 유사 이래 처음 해외포교에 나선다.

교파신도의 해외포교는 1885년 신도수성파의 조선포교가 그 효시다. 물론 이 시도는 2차례의 포교로 끝나지만, 이후 1890년 흑주교, 1893년 천리교,

10) 井上順孝, 『神道入門』, 平凡社新書, 2006, 5면.

1894년 신궁교 등이 조선 포교를 시작한다. 1900년대 통감부 설치를 전후해서는 1902년 금광교, 1906년 신리교의 한국 포교도 시작된다. 교파신도의 해외포교는 거의 대부분 한국을 거점으로 세력의 확장을 도모했다.

교파신도 13교파 가운데 한국 땅에서 포교를 개시한 것은 총 12개(신궁교 포함) 교파로, 대성교와 계교를 제외한 모든 교파가 한국에서 포교했다. 이 가운데 통감부 설치 이후 1915년 '포교규칙(총독부령 제83호)'이 선포되기 전까지 포교를 전개한 것은 금광교, 대사교, 신리교, 신습교, 천리교 등 5개 교단이다. 다만 『통계연보』의 1910년과 1911년 자료에 보면 궁지옥(宮地獄)과 환산교(丸山教)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기록자의 '공인교'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후술하겠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궁지옥이 소속된 '실행교'와 환산교가 소속된 '신도본국'도 1910-1911년 조선포교를 개시한 교파로 포함시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11]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포교를 전개한 교파신도 가운데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포교 거점을 둔 교단은 천리교, 금광교 등이다. 교파신도의 연도별 전국 분포 양상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교파신도 연도별 분포 양상 * ( )는 폐지된 포교소 수(이하 동일)

종파명	1910 -1915	1916 -1920	1921 -1925	1926 -1930	1931 -1935	1936 -1940	1941 -1945	계	
금광교	18	11	7 (-1)	6 (-4)	5 (-2)	(-2)		47	-9
대사교	2 (-1)	1	2	3	3	1		12	-1
부상교				6 (-2)	12 (-3)	11 (-8)	1	30	-13
신도본국			1	3	1		2	7	
신도수성파						1		1	
신리교	10 (-3)	6	7 (-1)	14 (-1)	10 (-1)	3	3 (-1)	53	-7
신습교	1		2			2		5	-2

11) 궁지옥과 환산교에 대한 분석은 권동우, 「교파신도와 '근대신화' 연구의 가능성 모색」, 『일본연구』 64,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5, 13-15면 참조.

	(-1)		(-1)						
실행교				3		3		6	
어악교				1	7 (-1)		1	9	-1
천리교	31	17	35	18	59	38 (-5)	11 (-1)	209	-6
흑주교				5			1	6	
계	62 (-5)	35	54 (-3)	59 (-7)	97 (-7)	59 (-15)	19 (-2)	385	-39

『관보』 기록을 통해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를 시기별로 볼 때,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은 금광교, 대사교, 신리교, 신습교, 천리교의 5개 교단이었다.

한편 신도본국은 1924년 12월에 '신도신리교경성분교회(神道神離教京城分教會)가 첫 포교소 설치인가를 받으며,[12] 『통계연보』에도 1925년부터 신도본국이 등장하고 있다.[13] 흑주교는 1926년 아키야마 이타로(秋山伊太郎)가 첫 포교인가를 받는데, 정식 포교소는 1927년 5월 전북 군산에 처음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상교는 1920년에 다나카 세이치로(田中成一郎)가 첫 포교 인가를 받지만 포교관리자와 포교관리소 인가 시기는 알기 어렵다. 『통계연보』에는 1925년에 부상교의 통계가 처음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포교관리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관보』에는 기록이 없다. 다만 1929년 6월에 포교관리소가 경성부 황금정에서 부산부 영선정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행교도 부상교와 동일하게 1920년에 모리오카 료사쿠(森岡良作)가 첫 포교인가를 받지만 1927년 포교인가가 취소되고, 포교인가 및 포교소 설치인가는 1929년 9월 경성부 병목정을 거점으로 다시 이뤄진다.

어악교의 경우 1929년 제7대 관장(管長) 오마에 히로키치(尾前廣吉)의 이름으로 포교인가를 받는데, 실제 포교관리사무소 인가 시기는 불분명하다.

12) 신리교(神離教: 가무로기교)는 神理教와 구별된다. 일부 연구에서 마치 독립적인 신도 교단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으나, 신도본국 소속 교회로 조선에서 포교했다.

13) 1924년에만 신리교(神離教)로 기록되며, 1926년부터는 '신도'라는 공식 명칭으로 포교인가 외 공식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1930년 7월에 포교관리사무소 위치를 경성부 본정2정목에서 4정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아 1930년 이전에는 포교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연보』에 1930년 어악교의 통계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1930년에 처음 인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4]

신도수성파는 교파신도 가운데 가장 늦은 1938년 10월 3대 관장 닛타 쿠니타치(新田邦達)가 포교인가를 받으며, 포교소는 1939년 1월에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치된다.

김태훈의 경우 교파신도의 연도별 포교 양상에 대해 1915년 이전까지 60개, 1915-1920년에 40개, 1921-1925년에 59개, 1926-1930년에 55개, 1931-1935년에 96개, 1936-1940년에 57개, 1941-1945년에 20개로 총 387개의 포교소가 설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논문에서 1921-1925년에 58개, 1931-1935년에 95개로 각각 하나씩 적게 표기하면서 총 포교소 수를 385개라고 하는 등 연도별 분포 양상과 총 수에 있어 혼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시 각 교파의 포교소 설치 인가일을 기준으로 정리하면서 중복을 피하는 분류를 했다. 그 결과 1915년 이전까지 62개, 1915-1920년에 35개, 1921-1925년에 54개, 1926-1930년에 59개, 1931-1935년에 97개, 1936-1940년에 57개, 1941-1945년에 19개로 총 385개의 포교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총 39곳의 포교소가 폐지됨으로써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346개의 교파신도 포교소가 국내에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비율을 보면 천리교가 54.2%로 가장 높고, 신리교가 14%, 금광교가 12.2%, 부상교 8%, 대사교 3%, 어악교 2%, 신도본국 1.7%, 실행교와 흑주교가 각각 1.5%, 신습교 1.2%로 나타난다. 연도별 포교의 분포를 보자면, 1915년까지가 전체의 16.3%, 1916-1920년 9%, 1921-1925년 14%, 1926-1930년 15.3%, 1930-1935년 25.1%, 1936-1940년 15.3%, 1940-1945년 5%로 변화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14)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 1932, 659-660면.

각 교파의 연도별 특징을 보자면, 천리교는 1930-1940년의 약 10년 동안 급격한 교세 확장이 일어나는데 비해, 다른 교단의 경우 1925-1935년에 포교소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25-1930년의 경우 천리교는 18개 포교소가 증가하는데, 다른 교파신도는 총 41개의 포교소를 설치한다. 1931-1935년에도 그 여세를 몰아 38개의 포교소를 설치하는 등 이 시기의 교파신도 포교가 가장 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파신도의 시기별 분포를 통해 볼 때, 모든 교파신도가 조선포교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 1920년대 중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라는 점인데, 왜 이 시기에 갑자기 포교가 급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역시 향후 각 교파별 상황과 시대적 특징을 연계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파신도의 각 지역별 포교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표2〉를 보자.

〈표 2〉 교파신도 지역별 분포 양상

종파명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금광교	9 (-3)	8	4 (-2)	3	3 (-1)	3 (-1)	1	3 (-1)	1	1	3	5 (-1)	3	47 (-9)
대사교	3	1	1	1	1	1		2 (-1)				2		12 (-1)
부상교	5 (-3)	17 (-6)	2 (-1)		1	1 (-1)						2 (-2)	2	30 (-13)
신도본국	3	2			1	1								7
신도수성파												1		1
신리교	15 (-4)	25 (-1)	3		1	1	2 (-1)	3 (-1)	1			2		53 (-9)
신습교	2 (-1)	1							2					5 (-1)
실행교	5			1										6
어악교	6		3 (-1)											9 (-1)
천리교	50	46 (-4)	21 (-1)	11	11	5	4	15 (-1)	8	1	11	15	11	209 (-6)

흑주교	3	2			1									6
계	101 (-11)	102 (-11)	34 (-5)	16	19 (-1)	12 (-2)	7 (-1)	23 (-4)	12	2	14	27 (-3)	16	385 (-39)

전국 13도 가운데 교파신도의 포교가 가장 왕성했던 지역은 경기와 경남이다. 두 지역에 각각 101개와 102개의 포교소가 설치되어 전체 포교소 가운데 5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이 34개로 뒤를 잇지만 경기나 경남에 비해 격차가 크며, 함남 27개, 평남 23개 등 포교소 20개가 넘는 지역은 5개 지역에 불과하다.

경기지역의 경우 1938년에 포교를 개시하는 신도수성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파신도가 포교소를 두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실행교와 어악교의 경우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남에는 포교소가 1개도 없으며, 전국적으로 포교소를 둔 금광교와 천리교도 강원에는 각각 한 군데의 포교소만 설치했다는 점이다.

신도 각 교파의 전국 포교소 분포 가운데 경기와 경남, 특히 경성과 부산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파신도가 조선 각 지역으로 포교를 확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1개의 교파 가운데 전국에 걸쳐서 포교소를 설치한 교단이 천리교와 금광교에 불과하다는 점도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의 교세가 각 지역의 특정 거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파신도의 포교가 당시의 지역 인구 분포와 관계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연보』의 인구 통계를 확인해 보자.[15]

〈표 3〉 1942년 말 기준 전국 인구

지역	조선인		일본인	
	호 수	인구	호 수	인구
경기도	570,957	3,223,856	46,180	206,627
충청북도	173,033	979,423	2,462	9,417

15)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 1944, 17면.

충청남도	292,347	1,667,840	6,506	28,228
전라북도	315,725	1,721,163	8,134	35,363
전라남도	527,146	2,817,585	10,627	45,250
경상북도	477,674	2,634,743	10,991	45,244
경상남도	464,010	2,470,353	22,949	98,974
황해도	365,336	1,956,156	6,802	26,189
평안남도	338,702	1,841,433	12,429	51,263
평안북도	334,317	1,896,290	8,866	32,252
강원도	333,912	1,866,260	5,806	21,101
함경남도	356,318	2,054,965	17,499	73,990
함경북도	233,492	1,231,334	20,098	78,925
계	4,782,969	26,361,401	179,349	752,823

전국 인구 분포는 경기도가 322만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 경북, 경남, 함남, 황해, 평북, 강원, 평남, 전북, 충남, 함북, 충북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 분포를 통해 볼 때, 경기, 경남, 경북, 함남, 평남 순으로 이어지는 교파신도의 포교 거점은 언뜻 인구 분포와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전남의 포교소 수가 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함북의 포교소 수와 동일하다는 점, 인구비율이 높은 황해나 평북의 포교소가 현저히 적다는 점 등, 조선인 인구와 포교소 설치가 반드시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교파신도의 조선포교가 '조선인'을 주된 포교 대상으로 하는 포교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이다.

이에 비해 일본인의 경우 경기에 20만을 비롯하여 경남, 함북, 함남, 평남, 전남, 경북, 전북, 평북, 충남, 황해, 강원, 충북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일본인의 40.6%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와 경남에 교파신도 포교소의 52.9%가 몰려 있는 점, 또 함남, 함북, 평남, 경북, 전북, 전남 등 일본인의 거주 비율과 포교소 설치 비율이 유사하게 형성되는 등, 교파신도의 조선 내 포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포교거점을 형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42년 기준 일본인 거주자 752,823명에 대해 교파신도의 일본인 신도 수는 75,244명으로 일본인 인구 대비 약 10%임을 보면, 금광교와 대사교를 제외한 대부분 교파신도 포교소의 신자 수가 200명 내외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

는 수준의 영세한 규모에 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16]

4. 각 교파별 조선포교 양상

1) 금광교

〈표 4〉 금광교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6	4	1	2	1	2		1				1		18
1916-1920	1		1		1		1	2	1	1	1	1	1	11
1921-1925	1	2	1 (-1)	1	1							1		7 (-1)
1926-1930	(-3)	1	1			1		(-1)			1	1	1	6 (-4)
1931-1935	1	1				(-1)					1	1 (-1)	1	5 (-2)
1936-1940			(-1)		(-1)									(-2)
1941-1945														
계	9 (-3)	8	4 (-2)	3	3 (-1)	3 (-1)	1	3 (-1)	1	1	3	5 (-1)	3	47 (-9)

금광교의 한국 포교는 1902년 가을 시모노세키교회(下關教會) 소속의 포교사 마에다 고조(前田五助)가 부산에 건너와서 1903년 5월에 부산교회를 설립한 것이 그 효시다. 일반적으로 교파신도의 해외포교는 조선포교를 필두로 했던 것에 비해 금광교는 1902년 2월 대만(臺灣)에서 포교를 시작했으며, 한국이 두 번째 해외포교의 거점이었다.[17] 이후 오이타현(大分縣) 출신 나카무라 타케쇼(中村武章)에 의해 1906년 9월 금광교 교회, 1908년 용산교회가 설립된다. 일본 금광교본부는 1908년 6월에 '한국포교관리규정'을 제정하는

16) 朝鮮總督府學務局錬成課 編, 『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要覧』, 조선총독부, 1942, 22면.
17) 渡邊順一, 「日本植民地統治下での東アジア布教—台湾·朝鮮·満州での布教の軌跡とその問題—」『金光教學』 31, 金光教學研究所, 1991, 1면.

등,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한국포교 준비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

통감부 발행『종교에 관한 잡건철』(이하,『잡건철』)에 보면 포교관리자 나카무라 다케쇼에 대한 통감부의 인가는 1906년 3월 5일 이뤄진다. 신도 교파 중 금광교가 가장 먼저 포교관리자 신청 인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1907-1909년 사이 용산 욱교통(旭橋通)에 용산소교회소(포교사:中村武章), 인천 신정(新町)에 인천소교회소(포교사:戶次元吉), 부산 부평정에 부산교회소(포교사:前田五助)를 설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보』를 통해 볼 때 금광교가 조선에서 최초로 등록한 교회소는 1911년 5월 2일에 경성부 영락정에 설치된 '경성소교회'다. 한편 동년 동월 26일-27일 사이에 경성소교회와 용산소교회, 인천소교회의 명칭변경이 각각 인가되고, 동년 12월 27일 부산교회소의 교회소이전 인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인천과 용산, 부산에도 교회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광교의 조선포교는 1910-1920년의 약 10여년 동안 가장 많은 포교소를 설치하면서 왕성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지만 점차 활동이 둔화한다. 이런 추세는『통계연보』에 기록된 신자 수의 추이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1926년 신자 수 26,207명을 기록한 후 1927년 18,281명으로 급감하며, 이후 좀처럼 교세를 회복하지 못한다. 특히 1936년 이후에는 포교소 폐지되더라도 새 포교소를 설치하지 않는 등 조선포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들이 왜 갑자기 조선포교에 소극적으로 변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가야 할 것이다.

2) 신리교

신리교는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된 직후부터 건백서를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내면서 적극적인 한국포교의 의지를 드러낸다.『잡건철』에 보면 신리교는 1906년 4월 19일 포교관리자 타니구치 시게이치(谷口茂市)에 대한 통감부 인가를 받는다.

---

18) 위의 글, 7-12면.

〈표 5〉 통감부기 신리교 포교 양상

번호	교회명	소재지	포교사
1	神理教京城分院	京城 本町 9丁目 雙林洞	谷口茂市
2	神道神理教日韓布教所	京畿道 開城 架谷深泉 11統 10戶	谷口茂市
3	神道神理教教會所	京城 米倉町 28番戶	新田フサ
4	大日本神道神理教教會所	京城 北部 弘濟院 上洞 2統 8戶	谷口茂市
5	布教所	京城 靑坡內	捉原行信
6	神道神理教教會所	京城 南部 明哲坊 南小洞 樹坪里	谷口茂市
7	神道神理教巡回布教所	京畿道 水原郡 北部面 新豊洞	谷口茂市
8	神理教	釜山 西町 4丁目	山崎熊雄
9	神理教	釜山 西町 2丁目 6番地 2戶	浦田謙民

통감부기 신리교는 경기도(경성, 개성, 수원)와 부산 등 총 9개의 포교소에 6명의 포교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다섯 곳의 포교사가 타니구치라는 점에서 그의 한국 포교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무당들을 회원으로 포섭하여 회비를 받는 포교를 펼쳤고, 이들 무당의 회비를 횡령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등[19] 신리교의 한국포교는 이후 교파신도의 조선포교 및 일제의 종교정책 구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에 관한 향후의 연구도 기대된다.

신리교에 관한 『관보』기록은 1911년 7월 경성의 홍제원, 명철방, 청파내 등 세 곳 포교소의 폐지인가부터 확인된다. 경성분원은 1911년 12월 교회소 이전 인가를 하며, 부산 서정의 포교소 두 곳은 부산교회소로 통합하여 1911년 8월 포교소 설치인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개성과 수원의 포교소는 이후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신리교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5 (-3)	4						1						10 (-3)
1916-1920	2	2	1									1		6

19) 「入會金欲推」, 『황성신문』, 1910.06.26.

1921-1925	1 (-1)	3	2					1 (-1)						7 (-2)
1926-1930	4	7						1	1			1		14
1931-1935	1	7 (-1)			1		1							10 (-1)
1936-1940	1	1				1								3
1941-1945	1	1					1 (-1)							3 (-1)
계	15 (-4)	25 (-1)	3		1	1	2 (-1)	3 (-1)	1			2		53 (-7)

신리교는 포교소가 경기도와 경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다른 신도 교파와 유사한 현상이지만, 신리교의 경우 경기와 경남의 비율이 76%에 달해 30개 이상의 포교소를 가진 교파 가운데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경성이 12개, 부산이 17개며, 그 외에도 통영 3개, 평양 3개, 밀양 2개, 동래 2개, 대구 2개 등 각 지역으로 분산되기보다는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포교군(群)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적극적인 포교를 전개하던 신리교는 일본인이 많은 지역에 포교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대 중반 이후 포교소 설치가 정체되는데, 신도 수의 변화에 있어서도 1937년 일본인과 조선인 합계 9,937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세로 돌아서며 이후 반등하지 못한다.[20]

3) 대사교

〈표 7〉 대사교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1						1						2
1916-1920												1		1
1921-1925	1					1		(-1)						2 (-1)

20) 朝鮮總督府學務局錬成課 編, 『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要覧』, 1942, 24면.

1926-1930			1		1							1		3
1931-1935	1			1				1						3
1936-1940	1													1
1941-1945														
계	3	1	1	1	1	1		2 (-1)				2		12

『잡건철』에 보면 대사교는 1907년 7월 10일 교파신도 중 세 번째로 포교 관리자 히로세 하루나가(廣瀨玄鋹)에 대한 포교 인가가 이뤄지며, 1907-1909년 사이 '출운대사교교회강의소(出雲大社教教會講義所, 포교사: 丸目幸平)'를 경성 유정(柳町)에 설치했다.[21] 한편 1910년 말 조사한 『통계연보』에 보면 대사교 포교소 1개, 포교사 1명으로 일본인 20명의 신도였던 것이, 1911년 조사에서는 신도 수가 일본인 45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22]

『관보』의 대사교 관련 기록은 1913년 7월 2일 '대사교초량교회소'의 포교소 이전 인가(부산부 사중면→부산부 본정 5정목)부터이며, 그 이전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909년-1913년 사이에 대사교 초량교회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이 기간에 기존의 포교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한편, 『관보』에는 '신도출운교경성분원(神道出雲教京城分院)' 또는 '출운교회부산소교회(出雲教會釜山小教會)' 등도 등장하는데, 대사교의 원래 명칭이 '출운대사교(出雲大社教)'라는 점에서 '신도출운교'나 '출운교회'를 대사교 소속 교회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23] 하지만 이는 이름만 유사할 뿐 실제 이들 교회는 신도본국(神道本局) 소속이라는 것을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표7〉을 중심으로 대사교의 포교소 설치에 대해 지역과 연도별 특징을 생각해 보면, 다른 교파와 달리 특정한 연도에 동일한 지역에 2개 이상의 포교소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일본에 있는 대사교 본부에서

21) 「布教所及布教者一覧表」, 『宗教ニ關スル雜件綴』, 1909.
22)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 1913, 847면.
23) 문혜진, 앞의 글, 2019a, 211-213면.

조선 내 포교소 설치를 통제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교파들의 국내 포교 거점이 신도들의 인연을 따라 이뤄진 점과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자료 발굴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4) 천리교

천리교는 오랫동안 신도의 조선포교 또는 해외포교의 효시로 인정되어 왔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해 천리교보다 앞서 신도수성파(1885)와 흑주교(1890)의 조선포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리교를 조선포교의 최초 교단으로 규정한 것은 1926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一覧』이며, 이후 이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학계의 정설이 된 것으로 보인다.[24]

천리교가 조선포교의 '최초'는 아니라 해도 신도 가운데 가장 왕성한 포교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은 틀림없다.『잡건철』에 보면 천리교는 1907년 9월 24일 나카무라 키치타로(中村吉太郎)에 대한 포교관리자 인가가 이뤄지며, 이후 경성과 인천, 부산에 포교소를 두고 포교활동을 전개한다.

〈표 8〉 통감부 시기 신도천리교의 조선포교 양상

번호	교회명	소재지	포교사
1	天理教京城宣教所	京城 壽町 3丁目 番外 43番地	大熊松次郎
			大塚安馬
			大野原武兵衛
			大久保荒吉
			高島喜代治
			大熊コマ
			田渕音吉
			吉田常吉
2	天理教韓國宣教所	京城 吉野町 1丁目 6番號	中山慶太郎
3	天理教龍山宣教所	龍山 山下町 2丁目	高橋市左エ門
4	仁川方面布教		掘井光之
5	仁川方面布教		桶口喜三九

24) 권동우, 앞의 글, 2018, 420-421면.

6	天理敎布敎所	仁川 宮町 2丁目 3-27	大塚安馬
7	天理敎布敎所	仁川 花町 1丁目 16	市川金次郎
8	天理敎釜山宣敎所	釜山 寶水町 1丁目 136番戶	大峰仁三郎
9	天理敎東韓宣敎所	釜山 富平町 1정목 124番戶-5號	南濱喜市

천리교는 1907-1909년 사이에 경성, 인천, 부산 등 총 9군데의 포교거점에서 15명의 포교사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의 포교사가 경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10년 『통계연보』에는 포교소가 14개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보』의 천리교 관련 기록은 1911년 10월부터 1912년 10월까지 약 1년 동안 포교소 11곳의 설치인가로 시작된다. 천리교가 매우 적극인 포교를 위해 포교소 설치를 급속도로 늘려가는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에도 천리교는 전국에 걸쳐 포교망을 구축함으로써 신도 교파 중 조선포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관보』로 보는 천리교의 연도별, 지역별 포교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9〉 천리교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8	11	2	1		1	1	3			2	2		31
1916-1920	4	4			3	1		1			2		2	17
1921-1925	8	9	4	1	4		2	1	3		1	1	1	35
1926-1930	4	1	5	1		1		1	2		1	1	1	18
1931-1935	14	10	8	5	2	1		5		1	1	6	6	59
1936-1940	9	9 (-3)	1 (-1)	3	2		2	4 (-1)	2		1	4	1	38 (-5)
1941-1945	3	2 (-1)	1						1		3	1		11 (-1)
계	50	46 (-4)	21 (-1)	11	11	4	5	15 (-1)	8	1	11	15	11	209 (-6)

천리교는 포교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특히 1931-1935년에는 포교소가 59개 급증하는 등, 이 시기에 가장 왕성한 포교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경남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한 포교가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충남과 충북, 강원 등지에서는 포교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강원지역은 단 1개의 포교소만 설치되어 포교가 현저히 저조하다.

그런데 1938년에 강원도 경찰부에서 발행한 『치안상황』을 보면, 『관보』와 조금 다른 내용이 발견된다. 첫째 『관보』에서는 1933년 12월 19일에 춘천선교소가 설치인가 되는데, 『치안상황』에는 강원도에 천리교 포교소가 설치된 시기를 192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실제 현장의 포교소 설치와 관공서에 등록하는 상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관보』 기록에는 강원도에 금광교와 천리교 포교소가 각각 1개씩 설치된 기록만 있는데, 『치안상황』에는 금광교 2개, 천리교 3개의 포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셋째 『치안상황』에는 비록 포교소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대사교, 신도본국, 흑주교, 어악교의 신자 수를 파악하면서 이들 6개 교단을 강원도 내에서 포교하는 '신도'로 기록하고 있다.[25]

이렇게 볼 때, 『관보』의 기록이 조선 내 각 종교의 포교 양상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는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뤄졌던 포교 현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을 참조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5) 신습교

〈표 10〉 신습교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1 (-1)													1 (-1)

25) 「宗教及類似宗教」, 『治安狀況』, 강원도경찰부, 1938.

1916-1920														
1921-1925									1					1
1926-1930	1													1
1931-1935														
1936-1940	(-1)	1							1					2 (-1)
1941-1945														
계	2 (-2)	1							2					5 (-2)

『통계연보』에 보면 신습교의 조선포교는 1910년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통감부 발행 「포교소에 관한 철(明治40년1월-明治42년12월)」에서도 신습교가 1910년 4월 25일 경성부 황금정 갑1번호를 소재지로 포교 신청을 하며, 동월 27일 인가된 기록이 있다. 한편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에 신습교가 1910년 2월에 통감부의 포교 인가를 얻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26] 이는 1910년 2월 8일 다카하타 이사오(高畑庸)가 포교소 설치 없이 '단독포교자'로 포교인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7] 동년 6월 1일에는 주소지를 경성 광천정(廣川町) 5번호로 이전한다.

흥미로운 점은 첫째 1911년 신습교 포교인가를 받는 포교사 다카하시 히사시(高橋久司)가 1906년부터 신궁봉재회(神宮奉齋會) 한국지부 성격인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단군(檀君)과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합사를 추진하는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며,[28] 둘째 1911년에 신습교조선포교소의 포교관리자로 인가받은 다카하타 이사오가 당시 한국의 상무조합부장(商務組合部長)으로서 일진회의 한일합방 찬성에 독단적으로 상무조합을 대표해서 찬성의 의견서를 공표했다가 제명당한 이학재(李學宰)를 끌어들여 포교의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 사항에 대한 당시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다.

---

26) 「日教又出」, 『대한매일신보』, 1910.02.13; 「日神布教 」, 『황성신문』, 1910.02.13.
27) 「宗教單獨布教者一覽表」, 『종교에 관한 잡건철』, 통감부 지방부, 1910.
28) 「大同任員」, 『황성신문』, 1908.02.23; 「大同任員」, 『대한매일신보』, 1908.02.27; 「신궁봉경회 임원」, 『대한매일신보』, 1909.07.28.

李學宰ᄂᆞᆫ 再昨日 下午 六時에 商務組合 部員 等을 會集 說明하되 日昨 統監府에셔 認可狀이 來到하얏다 하며 該組合部ᄂᆞᆫ 무ᄉᆞᆷ敎會라 改稱하고 各 地方 商務頭領 等은 佈敎師로 一般 商民 等은 習敎人으로 改稱ᄒᆞᆫ다 하얏다더라.[29]

商務組合部長李學宰ᄂᆞᆫ 天照敎를 擴張ᄒᆞᆯ 計劃으로 日人高田庸을 委送ᄒᆞ야 日本政府에 運動ᄒᆞᆯ 次로 目下旅費를 周旋中이라더라.[30]

이리하여 신습교는 포교를 개시한 시점에 일본인 신도가 0명임에도 조선인 신도 2,000명을 총독부에 보고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31] 하지만 신습교의 한국 포교는 이후 별다른 세력 확장을 꾀하지 못하다가 1913년 천성교회(天誠敎會)의 포교소 인가가 취소되면서 일시적으로 조선 포교의 흐름이 끊어진다. 그 이후 신습교 포교에 관한 『관보』 기록은 1924년 1월 평안북도 신의주에 포교관리자 설치인가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 이어 1926년 인천강사(仁川講社)를 설치하면서 포교를 재개하지만, 1932년 일본인 신도 180명을 끝으로 점점 쇠락하여 1930년대 중반부터는 30-50명, 적을 때는 10명 내외의 영세한 교세를 유지한다.

6) 부상교

〈표 11〉 부상교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1916-1920														
1921-1925														
1926-1930	1	3	1		1									6
1931-1935	3 (-1)	6 (-1)				1						1	1	12 (-2)

29) 「李學宰說說」, 『황성신문』, 1910.04.07.
30) 「又一運動」, 『대한매일신보』, 1910.04.08.
31)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 1912, 661면.

1936-1940	1 (-1)	7 (-10)	1									1	1	11 (-11)
1941-1945		1												1
계	5 (-2)	17 (-11)	2		1	1						2	2	30 (-13)

『관보』 기록으로 볼 때 부상교의 조선포교는 1920년 다나카 세이치로(田中成一郎)의 포교인가로 시작된다. 부상교의 초창기 조선포교는 앞서 신습교의 포교사 다카하시 히사시가 신궁봉경회에서 추진했던 단군과 아마테라스를 합사하는 신궁건축사업을 계승·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조선총독부가 대영단으로써 일본 神道家에 대하여 조선 개교의 인허를 하였으므로, 藤枝 扶桑教 관장과 今泉 神宮奉齋會 회장 등은 그 인가의 주지를 이루고자 목하 포교 방법에 관하여 준비 협의 중인데, 착문한 바에 의한 즉 경성 동대문밖 關帝廟를 총독부로부터 빌려주기를 청하여 그곳을 대수선하고 구월 중순으로써 그 開教式을 거행할 예정으로 일본의 신도 각파로부터 지명의 인사 각 수십명이 참렬하고 제신은 천조황대신, 소잔명존 즉 조선 건국의 주인으로 숭배하여 오는 檀君을 合祀하고 또 조선인 신앙의 *지도 拜祀하고 개교대제를 집행하는 동시에 조선 수천년 역사상 세습적 신앙으로써 세워 있는 인사 즉 충절인사를 찾아서 각 도로부터 대표가 참렬케 할터이다.[32]

신궁봉재회는 조선신궁이 신축된 후에도 교파신도와 연계해서 단군과 아마테라스(천조대신)를 합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부상교의 관제묘 임대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마땅히 이들이 추진했던 단군과 아마테라스 합사도 불발에 그쳤지만, 부상교가 당시 어떤 방향과 목적에서 조선포교를 개시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조선포교를 시작한 부상교가 실제로 포교관리자를 선임하고 포교관리소를 설치하여 각 지역에 포교소를 설치하는 것은 1929년 6월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1〉을 통해 볼 때 부상교의 포교는 주로 그 거점을 부산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파에 비해 유난히 포교소의 폐지

32) 「東大門外所在, 關帝廟內에, 天照皇大神과 조선국국주 檀君까지 合祀」, 『매일신보』, 1920.08.01.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1937년 일제에 의해 교단이 해체되는 '히토노미치(ひとのみち)' 교단이 부상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토노미치'는 일본에서 '사교(邪教)'로 지목되어 특별고등경찰의 취체에 의해 교단이 해산되며, 이는 대본교(大本教)처럼 유사종교로 분류된 교단에 대한 해산이 아니라 부상교라는 교파신도에 소속된 종교단체가 국가의 탄압으로 해산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히토노미치 교단이 조선포교를 개시한 것은 1934년 1월부터다. 경성, 대전, 부산, 원산, 대구, 함흥, 마산 등의 지역에 총7개의 교회를 설립해서 활동하지만, 1937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포교소 폐지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져 일체의 포교행위가 중지된다.

7) 신도본국

신도본국의 원래 교단명칭은 '신도'다. 그 성립의 역사를 간단히 보자면, 먼저 메이지유신 후 일본정부는 대교선포(大教宣布)에 의해 국민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도 선교사(宣教師) 제도를 도입하지만 신도 위주의 국민교화에 실패하고, 새로 교부성(教部省)을 설치하고 교부성 안에 대교원(大教院)을 두었다. 대교원은 원래 신도 세력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난 불교계의 건의에 의해, 또 정부는 불교계를 국민교화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신도 색깔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서 불교계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불교계의 '대교원 분리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내부 분란으로 대교원이 조직으로서 제대로 기능 할 수 없게 되자, 신도가들은 신도계의 사무를 주관할 조직으로 '신도사무국' 설립을 교부성에 신청해서 인가된다. 신도사무국 설립 이듬해 흑주교와 신도수성파가 신도사무국의 인가에 의해 개별 교파로 독립하는데, 메이지 정부는 신도사무국을 독립한 교파와 동일하게 하나의 교파로 취급한다. 이는 뒤에 신궁교 등 5개 교파가 신도사무국에서 독립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어정쩡한 정체성을 가지던 신도사무국은 1886년 교규(教規)를 개정해서 지방의 사무소를 분국(分局)으로 하고 중앙 사무국은 본국(本局)으로 하면서 교단 명

칭을 신도본국으로 정한다.[33] 그러므로 모든 신도 교파는 신도본국의 전신인 신도사무국에서 출발했으며, 또한 신도 관련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신도사무국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도본국은 교단의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신도본국은 1941년 교단 명칭을 다시 신도대교(神道大教)로 변경하며, 그와 관련해서 조선에서도 교파명칭과 교규 변경 인가를 받게 된다.[34]

이처럼 교단 내에 다양한 성격의 교회가 존재하는 신도본국의 특성은 조선포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곧 앞서 문제를 제기됐던 것처럼 1906년에 한국에서 포교를 개시하는 환산교(丸山教)가 신도본국 소속의 교회였다는 점에서 이를 신도본국의 조선포교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보』에 신도신리교(神道神離教)[35]나 신도환산교회(神道丸山教會), 신도출운교(神道出雲教)[36]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 또한 신도본국 소속으로서 개별교회의 명칭을 사용해서 포교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표 12〉 신도본국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1916-1920														
1921-1925	1													1
1926-1930	1	1			1									3
1931-1935	1													1

33) 「神道各派の順位問題」, 『読売新聞』 1931.03.25.
34) 「神道教派名変更並教規変更認可の件」, 『신도사원법인 기독교법인 인가 관계 서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1941.
35) 神崎一作, 「神道朝鮮布教管理者に関スル件」, 『宗教雑件綴』,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 1926.
36) 출운교(出雲教)는 출운대사교(出雲大社教)와 동일한 출운대사(出雲大社)에서 출발하였지만, 대사교가 센게 타카토미(千家尊福)를 중심으로 한 센가(千家)의 주재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과 달리 출운교는 기타지마 나가노리(北島脩孝) 중심의 기타지마가(北島家)의 주재에 의해 시작되어 유지되는 교단이다. 1883년 1월 출운북도교회(出雲北島教會)로 시작되었으나 동년 11월 신도출운교회로 명칭 변경했고, 1885년 신도사무국 직할교회가 되었으며, 1913년 교회규약을 신도본국으로 정정했다.(『神典大觀』http://shinden.boo.jp/)

1936-1940														
1941-1945		1				1								2
계	3	2			1	1								7

『관보』에 기록된 신도본국의 조선포교는 1924년 신도본국 직할 신리교(神籬教)의 포교소 설치를 시작으로 하며, 이후 1929년 3월 8일 환산교회, 3월 10일 팔판교회(八坂教會), 1930년 4월 7일 출운교회 등이 신도본국 소속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모두 개별교회의 단독 포교였다는 점에서 그다지 큰 교세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8) 실행교

〈표 13〉 실행교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1916-1920														
1921-1925														
1926-1930	3													3
1931-1935														
1936-1940	2			1										3
1941-1945														
계	5			1										6

『관보』에 기록된 실행교의 조선포교는 1920년 모리오카 료사쿠(森岡良作)에 대한 포교인가로 시작된다. 그런데 모리오카는 따로 포교소를 설치하지 않은 채 1925년까지 포교를 전개하며, 『통계연보』에는 신자 수가 처음에 130명에서 1922년부터 30명으로 줄고, 1925년에는 단 한 명의 신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37] 이에 모리오카는 1926년 일본으로 귀국해버리는데,

그가 포교사의 직무를 방기함으로써 1927년 9월 13일 포교인가가 취소되어 실행교의 조선포교는 중지된다.

그러다가 1929년 9월 4일 다나카 토매(田中とめ)의 신도실행교남부강사(神道實行教南部講社), 동년 동월 8일 야마자키 사이타(山崎才太)의 신도실행교광희교회(神道實行教光熙教會)가 각각 경성에 설치되면서 포교활동을 재개한다. 이후 포교소를 6개까지 늘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포교 거점을 경성부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어악교

어악교의 조선포교는 1929년 어악교 7대 관장 오마에 히로키치(尾前廣吉)가 포교 인가를 얻으면서 시작된다. 경성에 거점을 둔 포교소가 많고, 1935년 이후 약 2,000여명의 신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38]

〈표 14〉 어악교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1916-1920														
1921-1925														
1926-1930	1													1
1931-1935	4		3 (-1)											7 (-1)
1936-1940														
1941-1945	1													1
계	6		3 (-1)											9 (-1)

37) 1929년 발행 『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一覧』에서는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실행교에 신도가 단 한 명도 없으며, 1930년에 비로소 3명의 신도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享祀一覧』의 자료를 근거로 실행교는 1920년 포교개시 후 1929년까지 거의 포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8) 朝鮮總督府學務局錬成課 編, 『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要覧』, 1942, 24면.

어악교의 조선 포교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는데, 이들의 포교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조선포교관리사무소에서 신문에 광고를 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 3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네 차례 정도의 광고가 확인되는데, '포교사대모집(布教師大募集)'이라는 제목 아래 "신도 교사(教師)가 되어 기도(祈禱), 마지나이(禁厭)를 공공연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분을 급구함. 당교(當教)에서는 희망자에게 신비법(神祕法)을 무료로 공개하여 신덕(神德)을 받게 합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신점(神占)에 대한 안내로 "귀하는 귀하의 운명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명을 조사하면 귀하의 일신상에 있을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점을 보러 올 것을 권하거나, "난병자(難病者)에게는 기도 시술을 행하며, 기타 신사(神事) 일체에 응함"이라고 광고하고 있다.[39]

이러한 광고가 '조선포교관리소'의 이름과 주소지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어악교의 포교 양상이 신점이나 신비법, 치병, 재액(災厄) 방비 등 현세 이익과 관련된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혜진이 이미 신리교의 예를 들어 지적한 바와 같이, 교파신도가 치병이나 주술 등에 주목하는 것은 당시 신도 교파들이 굿이나 주술행위를 해야 하는 조선의 무당들을 포섭하는 것으로써 포교의 수단으로 삼았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40] 어악교 또한 이러한 주술적 포교를 주된 포교 방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0) 흑주교

흑주교는 1890년부터 인천, 경성, 부산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1898년 남산대신궁(경성신사의 전신) 건립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조선 내 활동을 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현재 흑주교 내에서도 조선포교의 역사로 기억되는 바가 없으며, 오히려 흑주교에서 말하는 공식 조

39) 「광고, 御嶽教朝鮮布教管理所」, 『조선신문』, 1930.03.14; 「광고, 御嶽教朝鮮布教管理所神明舘鑑定所」, 『조선신문』, 1930.04.24; 「광고, 布教師大募集」, 『조선신문』, 1930.05.09; 「광고, 御嶽教朝鮮布教管理所神明舘鑑定所」, 『조선신문』, 1930.05.23

40) 문혜진, 앞의 글, 2019a, 203면.

선포교는 1926년이다.[41]

〈표 15〉 흑주교의 연도별·지역별 포교소 설치 현황

지방 / 년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강원	황해	함남	함북	계
-1915														
1916-1920														
1921-1925														
1926-1930	3	1			1									5
1931-1935														
1936-1940														
1941-1945		1												1
계	3	2			1									6

흑주교는 1922년부터 포교사 아키야마 이타로(秋山伊太郎)를 중심으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나, 1926년 5월 31일 경찰에서 포교관리자 등록 없는 포교는 조선총독부의 사상통제 상 묵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을 받았고,[42] 이에 당시 경성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던 아키야마 이타로를 포교관리자로 신청하여 동년 12월 14일 인가를 받게 된다.

『관보』를 통해 볼 때 흑주교는 포교 인가 후 기존에 포교를 전개하고 있던 군산, 마산 포교소를 정식 포교소로 인가받고, 1927년 수원과 1929년 경성에 새로운 포교소를 신설한다. 하지만 포교소 설치는 지속되지 못하고 오랜 공백을 가지다가 1941년 부산 포교소 설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설하지 못한다.

한편 흑주교의 조선포교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라다 쿠니타로(原田國太郎)다. 그는 통영에 거주하던 재력가이며 흑주교 포교사로 흑주교 조선포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는 조선포교에 대해 다음과 같

41) 권동우, 앞의 글, 2018, 428-445면.
42) 『日新』제18권 제8호, 黒住教本部, 1926, 36면.

이 말하고 있다.

> 조선이 우리나라(일본)에 합병된지도 어언 18년, 황공하옵게도 위에서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정치를 펼치셔서 황운(皇運)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조선인은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자칫하면 좌경적 사상을 꺼내들고 지존(至尊)에 대해 공격의 표적으로 삼곤 한다. 실로 통탄할 일이다. (중략) 적극적인 통치를 펼치라고 하는 신의(神意)가 나타난 것이다.[43]

이처럼 흑주교의 조선인 포교는 그 목적이 천황의 일시동인(一視同仁)에 대한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리교나 어악교에서 무당이나 점술가들을 포섭하는 조선인 포교를 전개한 것과 달리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적극 협력하는 방향에서 조선인에 대한 '동화'를 목적으로 신도 포교의 전개를 구상했다 점에서 신습교와 유사한 포교양상을 보인다.

11) 신도수성파

1885년 신도 역사상 최초로 조선포교의 길을 열었던 신도수성파는 부산에서 단 2회의 포교를 끝으로 그 흐름이 끊어지고, 이후 조선에서 마지막 포교 인가를 받은 교단이 된다. 최초와 최후의 기록을 모두 이 교단이 갖게 된 것이다.

신도수성파는 1938년 6월 25일 총독부에 조선 최초로 여성 포교사인 츠보카와 하루노(坪川春野)를 포교관리자로 하는 포교신청을 한다. 신도수성파 3대 관장인 닛타 쿠니조(新田邦達)는 그녀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조선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덕망과 신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내 신도 교파 중에도 여성이 고위직에 있는 경우나 조선의 기독교 오순절교에서도 여성 포교관리자가 이미 인가를 받은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여성 포교관리자 임명의 정당성을 호소한다.[44] 이에 총독부에서는 동년 10월 26일에 포

43) 原田國太郎 口述, 原田朝子 筆記, 「赤木先生朝鮮布教隨行日誌」, 『日新』 19권 8호, 29면.
44) 「신도수성파포교인가원의 건-함남」, 『종교사원에 관한 잡건철』,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교인가를 하며, 이후 신도수성파는 새로운 포교소 신축 이전을 위해 동년 12월 15일 포교관리사무소 위치변경을 신청하여 12월 13일 인가를 받는다.[45] 이리하여 신도수성파는 1939년 1월 7일 함경남도 함주군 함흥읍 천기리에 신도수성파조선제일교무지국(神道修成派朝鮮第一教務支局)을 설치한다.

그런데 교파신도 가운데 최초로 여성포교사를 포교관리자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도수성파는 단 한 곳의 포교소만 설치한 채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며, 실질적인 포교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곧 1938년 이후 1941년 통계자료에 신도수성파의 신도 수는 계속 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46] 이는 포교소를 신축하여 개설했으나 실질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했다기보다는 교단 혹은 개인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 확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포교를 전개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확인해 갈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관보』기록을 중심으로 주변 자료를 참조하면서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의 조선포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11개 교파에 대한 포교의 내용을 한 편의 소논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가급적 전체 교파신도의 '조선포교'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첫째 교파신도의 조선포교가 조선 각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포교망을 가진 것은 금광교와 천리교 두 곳이지만 그나마 경기와 경남, 특히 경성과 부산에 포교 거점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교파신도의 전국적인 포교망 형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관보』와 주변 자료를 통해 볼 때, 교파신도 포교의 대부분은 조선에

1938.

45)「신도수성파 포교관리사무소 이전 허가원의 건」,『종교사원에 관한 잡건철』,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1938.

46) 朝鮮總督府學務局錬成課 編,『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要覧』, 1942, 24면.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신리교나 어악교에서 조선의 무당을 회원(포교사)으로 모집하고자 했던 현세이익을 통한 포교방법이나 신습교의 조선인 포교사 촉탁 선임, 흑주교처럼 조선인을 동화(同化)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협력하려는 움직임 등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의 방법을 추구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 교파신도 각 교파들이 지닌 조선포교의 특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관보』를 중심에 두고 『통계연보』, 『잡건철』『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一覧』 등과 기타 관공서의 기록, 언론기사 등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일본계 종교의 포교 양상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 사이에 교파신도 포교가 급증하는 이유가 과연 일제의 대륙침략 본격화에 부응하는 교파신도의 움직임이었는지 아니면 개별 교파의 포교 성향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등에 대해 자료를 근거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교파신도의 조선포교가 교단 지도부에서 일괄적인 통제를 가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포교사의 역량이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이 둘이 혼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각 교파별로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교파신도의 경우 불교나 기독교와 다르게 전업(專業)포교사가 거의 없으며, 포교사가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포교사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교파신도의 특성이 조선포교에 끼친 영향 또는 조선 종교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1941).
조선총독부, 『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一覧』(1926-1937).
조선총독부, 『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要覧』(1938-1941).
통감부 지방부, 『宗教ニ關スル雜件綴』(1906-1909).
「宗教及類似宗教」, 『治安狀況』, 강원도경찰부, 1938.
「神道教派名変更並教規変更認可の件」, 『신도사원법인 기독교법인 인가 관계 서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1941.
「神道朝鮮布教管理者に関スル件」, 『宗教雜件綴』,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 1926.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매일신보』, 『조선신문』, 『読売新聞』, 『日新』.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上)』,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총무부, 2001.
井上順孝, 『神道入門』, 平凡社新書, 2006.
권동우, 「교파신도와 '근대신화' 연구의 가능성 모색」, 『일본연구』64,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5, 6-34면.
_____, 「일제강점기 교파신도 한국 유입과 분포에 대한 연구」, 『일본불교문화연구』 11,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4, 83-139면.
_____, 「신도의 조선 유입에 관한 재검토: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6,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415-451면.
_____,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로 보는 근대신도의 이중성」, 『종교연구』 80-1, 한국종교학회, 2020, 283-312면.
김경집, 「근대일본불교의 한국 진출과 활동 양상」, 『한마음연구』4, 대행선연구원, 2020, 99-140면.
김성은, 「일본조합교회의 조선전도와 정교분리의 정치화」, 『일본어문학』 80, 일본어문학회, 2018, 443-462면.
김수진, 「사건으로 본 한국 기독교사13: 일본 조합교회와 조선 식민지 전도사건」, 『한국기독교사연구회소식』 1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1987, 19-22면.
김태훈, 「「조선총독부관보」로 보는 일본계 종교 유입의 전체도」, 『공존의 인간학』 4,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2020, 233-273면.
渡邊順一, 「日本植民地統治下での東アジア布教ー台湾·朝鮮·満州での布教の軌跡とその問題ー」『金光教學』 31, 金光教學研究所, 1991, 1-56면.
문혜진, 「일제강점기 경성부 교파신도의 현황과 활동양상」, 『서울과 역사』 101, 서울역사편찬원, 2019a, 195-227면.
_____, 「일제강점기 부산 교파신도의 현황과 활동양상」, 『향도부산』 3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9b, 363-398면.
박은영, 「일본조합교회 가시와기 기엔의 조선인식 연구」, 『일본문화연구』 5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6, 101-120면.
박혜미, 「일본조합교회 '순교회사' 유일선의 생애와 친일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독립

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211-258면.
_____, 「일본조합교회 간사 김린의 생애와 친일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5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9, 41-74면.
서정엄, 「일본불교의 포교—정토진종대곡파의 한국포교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6, 대각사상연구원, 2003, 87-125면.
성주현,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본조합교회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241-276면.
원영상, 「근대 일본불교의 한반도 유입의 초기 전개 양상-통감부통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7, 한국불교학회, 2018, 347-371면.
_____, 「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관계에 대한 연구」, 『일본불교문화연구』 11,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4, 11-35면.
_____, 「한국학계의 일본불교 연구 동향」, 『한국불교학』 68, 한국불교학회, 2013, 563-629면.
정성하, 「일본조합교회와 일본제국주의: 일본 조합교회의 조선선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 한국신종교학회, 2000, 264-291면.
제점숙, 「개항기 조선 일본불교의 종교 활동에 관한 연구-제국사적 관점에서 본 일본불교(정토종)의 동향」, 『비교일본학』 29,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3, 91-112면.
한상길, 「개화기 일본불교의 전파와 한국불교」, 『불교학보』 46,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7, 117-137면.
_____, 「일본 근대불교의 한·중 포교에 대한 연구」, 『한국선학』 20, 한국선학회, 2008, 351-394면.
홍치모, 「일본조합교회와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한국교회사학회지』 4, 한국교회사학회, 1992, 55-74면.
『神典大觀』 http://shinden.boo.jp/(2022.2.5. 검색).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the Propagation of Sectarian Shinto in Korea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ing on the Records of "The Official Gazette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1911-1945)—

Kwon, Dong-Woo*

This thesis generally arranged the current status of distribution by region and period regarding aspects that 'Sectarian Shinto' among Japanese religions was introduced into modern Korean society and developed the propagation in it by focusing on "The Official Gazette"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agation of each sect of Sectarian Shinto in 'Korea' based on this.

The current studies on Japanese religion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generally stay at general ones. But studies on Sectarian Shinto exposes the errors and limitations as the baseline data have not properly been analyzed. So, the study is meaningful as the basic study for deepening Sectarian Shinto and Japanese religious stud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by sect of Sectarian Shinto by compiling a chart about their aspects of distribution by period and region and then gave shape to their aspects of the propagation by classifying them into one another.

The points which are clearly unveiled through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ectarian Shinto's propagation did not penetrate deeper into each area in Korea than thought. Second, the existing argument that most of Sectarian Shinto propagated religion targeting Japanese people who lived in Korea could again be found. Third, the comprehensive review of "Statistical Yearbook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 Documents Binding Book about Religion", "The Lists of Religions and Events in Korea", the records of other government offices, the materials in the order,

* Associate Professor, Youngsan Univ. of Sŏn Studies.

and the news articles with “The Official Gazette” as the center could be found to have the possibility of outline details of the propagation of Japanese religions in Korea in the Japanese colony era.

Keywords: Sectarian Shinto, Propagation in Korea, “The Official Gazette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 Statistical Yearbook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 Documents Binding Book about Religion”, “Lists of Religions and Events in Korea”.

접수일: 2022.03.16.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19.